

к с і

# <동동>의 지역 축제 연출 가능성과 그 개발 방안

최정삼\*

<차 례>

1. 머리말
2. <동동>과 지역축제
3. <동동>의 축제 연출 가능성
4. 개발 방안 - 개발 모형 예시

## 1. 머리말

우리 사회가, 급격히 고도산업사회 외형의 구비와 추종을 사회전반에 요구하고, 그 사회 각 분야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거기에 적극 부응하거나 최소한 적응할 것을 강요하다시피 하면서, 잠시나마 힘겨운 노동과 메마른 일상으로부터의 방작(放着)과 일탈을 통하여 삶의 근원적 에너지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축제조차도 경쟁적 상업논리에 휩쓸려 그 본질을 잃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축제의 본래적 인간생활에의 의미를 환기하고, 그것이 어떻게 건강한 지역사회 행사로서 생태적 의의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돌아보면서, 동시에 그러한 축제가 '지금 여기'에 견실히 현전(現前)할 수 있는 시대적 자생력의 확보를 모색하는 일은 이제 다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게 되었다.

\* 전남대학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현재 1,000여개를 훨씬 넘긴 우리나라 전반의 지역축제의 상황은 축제의 본질이 부수적 효과에 전복되어 있는 현실이며<sup>1)</sup>, 이에 어긋날세라 작금의 우리 지역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축제의 현주소와 그 풍경은 오히려 한술 더 떠 답보적인 정체성(停滯性)을 넘어서 자괴적인 씩씩함마저 금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노출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축제의 중심으로 살아 있어야 할 민속적 원형이 축소 왜곡되거나 도외 시된 끝에 복원조차 해볼 길이 없게 된 지경인가하면, 지역적 정체성과 아무 상관이 없이 수익만을 목적으로 전국을 특징 없이 순회하는 난장상혼의 행사 현장 범람은<sup>2)</sup> 그 분양수입을 위해 지역축제를 팔아먹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에 축제 자체를 매몰시키고 있는 형국에 다르지 않다. 게다가 지역민의 참여와 합의 속에 기획되고 진행되어야 할 지역축제가 일부 고정적 유력인사들의 배타적이고 독점적 권한 행사로 전횡되고 있는 것도 축제가 진정한 지역민의 축제가 아니라 지역을 빙자한 행사 관련자들의 이권 축제가 되고 있다는 의구를 금할 수 없게 한다.

---

1) 김기형, 「춘향제의 축제적 성격과 변모과정」, 『춘향과 21세기 한국문화』(춘향제 70주년 기념 학술발표회), 관소리학회·춘향제전위원회, 2005.1, 43쪽.

1996년까지 조사된 축제만도 412개에 달하여 전국에 축제가 열리지 않는 지자체가 없는데, 이 중약 75% 가 1980년대 이후 만들어진 것으로 대부분 역사성 기반이나 전통성 기반이 없으며, 지역단위 경제활성화 요구에 몰린 지자체가 축제를 관광상품화 하려는 의도로 만든 것이 해가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전고필, 「지역축제의 속내와 무심한 관객」, 광주 문화의집 블로그, 2006.

축제의 현장에 가면 제일 먼저 우리를 반기는 것은 언제나 몽골형 대형부스를 만들어 풍물장터 먹거리 터를 만든 이들이다. 이들의 태반은 축제의 주최측과 관련이 없는 이들이지만 어느 경우는 주최측에서 일정한 비용을 받고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다. 그 누구보다 지역축제 소식에 민감하며 축제에 대한 반응을 잘 감지하고 있는 이들은 이제 조직화되어 있고, 기업화되어 있는 처지이다. 축제를 찾아다니며 축제의 흥을 높여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축제의 주제를 흐리게 하고 축제 공간의 동선을 파괴하며, 바가지 요금을 받아 마치 축제 주최측이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기도 하는 것이다. 행정의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사실 힘겨운 일이다. 몇년전 진도에서는 축제 행사장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는 행정력에 맞서 가스통으로 화염을 분사했던 사례를 보더라도 그들 또한 축제에 그들의 밥순가락을 의탁하고 있는 이 땅의 처연한 백성이기도 한 것이다.

축제의 행사 내용을 보더라도 천편일률적이고 진부한 가장행렬로부터, 조악하고 조잡한 부대행사들이며, 저급한 싸구려의 공연행사에 이르기까지 지역축제가 반드시 지니고 살려야 할 지역적 정체성 및 주제의 선명성과는 거리가 멀어보였다. 그나마 연예공연 따위를 비롯한 그런 행사에 축제 예산의 반 가까이가 소모되는 현실은<sup>3)</sup> 아무리 무감하려 노력해도 터져 나오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기층 지역민들의 행사 주체로서의 선도적 역할 담당은 물론 기본적 참여와 향수(享受)조차도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의문시하지 않기 어려운 것이 기왕의 모습이었다. 겉으로 드러난 편린들만으로도 심분 노정할 수 있는 것은 지역민들이 그 축제의 전후 과정에서 그저 구경꾼 내지는 국외자 정도의 자리에 머무르는 수준에서 별달리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지역축제가 본질에서 벗어나 질곡상태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은 지역과 지역민에게 단순한 불행 이전에 지역에너지와 재화의 투도적(偷盜的) 낭비와 누수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시급히 밀도 있고 정치(精緻)한 기존 축제 실태의 재검토와 함께, 축제의 안팎을 본질로 돌릴 수 있는 획기적 개선 방안이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에겐 여러 가지

### 3) 전고필, 앞의 글

전남에서 치르는 군 단위의 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은 적어도 3억에서 7억 사이를 오가는 액수이다.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치러지는 축제일수록 비용이 높다고 여기면 되고, 다수의 연예인이 오는 공연행사가 있을 경우 그 비용은 대개 1억 아래 위 사이로 지불되는 것으로 간주하면 된다. 3억의 돈을 들여 치르는 축제에서 1억 정도가 이렇게 연예인 초청 비용으로 한 두 시간에 쓰여 진다면 이제 남은 돈은 2억 정도 일터이다. 그 남은 돈으로 몽골부스를 비롯하여 매 축제 때마다 조성해야 하는 주차장을 만드는 비용, 인쇄비용, 홍보비용, 음향, 조명, 서틀버스 비용 등이 포함된다. 1억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는 돈이 또 들어간다. 이제 1억도 남지 않은 돈은 출연자 및 참여자들과의 힘겨운 겨루기에 쓰인다. 때에 따라서는 돈맛을 알아버린 이들이 이러저러한 압박을 가해오며 더 많은 돈을 그들의 프로그램에 투여해 주길 바라지만 없는 돈을 만들 수도 없는 입장이고 보면 그저 최소한의 비용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서도 문화부분이나 관광개발 부분, 청소년 부분 등에 들어있는 재원을 축제에 활용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종합적인 축제이고 지역민이 함께하는 마당이니 뭐라 달리 할 말은 없지만 그럼 축제가 끝나면 지역문화는 손가락만 빨고 있으란 말인지 궁색하기만 하다.

방안이 상고되어질 수 있을 것인즉, 그 중에는 전적으로 지역축제의 새판을 짜는 방법이나, 또는 외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기존 지역 축제와는 별도로 잠재적 가능성이 큰 새로운 축제를 발굴 기획하여 시연함으로써 지역 축제의 회복된 본질과 건강한 자생력을 아울러 갖춘 새로운 전범적 모형을 만드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 지역의 기존 축제가, 지역 테마축제를 살리는 데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두 가지, 즉 확고한 정체성 제고와 선명한 주제 부각의 적절한 시기를 선취하지 못한 나머지 같은 주제를 이미 타지역 여러 곳에 선점당하고 후발주자 아닌 후발주자처럼 되어버려서, 기존 주제의 축제로는 구태의연함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심분 고려할 때에, 이 새로운 지역축제의 전형 모색은 더욱 유용한 대안으로 상정될 수 있을 것이다.

## 2. <동동>과 지역축제

축제에 고려가요 <동동>(장생포곡)의 ‘여수의 노래’로서의 발전<sup>4)</sup>은 그 안에 내재하는 문예적 성격과 역사적 성격, 그리고 지역적 성격을 하나의 컴비네이션으로 엮어 새로운 지역축제를 창출해 낼 수 있는 획기적 전기의 신경지를 열었다 할 것이다. 더구나 동동의 가요적 성격에 더하여 여음의 북소리 의성(擬聲)이라는 테마는 그 음악적, 집체적 체험적 원초적 성격을 제대로 살려낸다면 예컨대 ‘세계 북소리 축제’ 등과 같은 세계 유수의 축제로서의 발전 가능성까지 겨냥해 볼 수 있는 훌륭한 소재가 될 것이다.

대체로 이상적 지역 축제로서 구비해야 할 선수적(先修的) 조건으로 첫

4) 김준옥, 「장생포의 창작배경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연구』 제44호, 한국언어문학회, 2000.

김준옥, 「동동은 여수의 노래」, 국어국문학회 제42회 전국학술대회, 연세대학교, 1999.

김준옥, 「장생포와 동동」, 『한국언어문학』 제35집, 한국언어문학회, 1995.

째 지역적 연고성, 둘째 역사적 사실성, 셋째 문화적 가치와 예술적 감응력을 기본적으로 들 수 있다. 이것이 축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축제 자체 및 그 배경의 역사성과 전통성 확보’를 통한 「지역 축제로서의 자체적 정체성」과 ‘내재적 문예 콘텐츠의 가치와 잠재적 가능성 발현’을 통한 「테마 축제로서의 주제적 선명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동동축제’가 이러한 선행적 구비 조건을 이미 이상적으로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상의 것만으로도 이 동동축제는 이미 축제의 네 가지 유형 중 전통문화축제, 지역문화축제, 예술문화축제의 세 가지 유형적 성격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라 할 터이다. 거기에 축제의 실제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지역민들의 참여를 더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등을 첨가하게 되면, 곧 이 ‘동동축제’는 대중문화축제로서의 성격까지 획득하게 될 것인즉, 그렇게 될 때 이 ‘동동축제’는 명실상부하게 축제의 네 가지 유형을 구유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참여 프로그램의 경우, 예컨대 ‘동동북축제’라고 할 때, 그 ‘북’이라는 소재는 다른 무엇보다도 참여자의 접근과 체험이 용이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보다 손쉽게 격의 없는 기층 지역민들의 대중문화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작금의 대부분 지역 축제가 지역민을 단순한 구경꾼으로 만들고, 심지어 행사의 통제 대상으로 전락시키는가 하면, 마침내는 국적 없는 상흔의 피해자로까지 희생시키는 편모가 없지 않음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체험프로그램은 그 자체로서는 자칫 작게 여겨질지 모르나, 그 의의는 장차 축제의 본질을 회복해나가는 대장정의 진일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작지 않은 것이 될 것이다.

사실, 축제에 관한 개념의 문제에 다소의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sup>5)</sup>

5) 김성중, 「한국축제의 개념과 범위」, 『소규모 저예산 동별 지역축제론 시론』, 향토축제문화연구소.

축제에 관한 개념의 문제는 많은 논란거리를 안고 있다. 한국전통축제가 가지고 있는 ‘제의적 성격’과 외국의 ‘festival’이나 ‘카니발’의 개념이 혼합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가중

그러나 그러한 논란 이전에, 축제는 그 발생사적 양상이 동서양 사이에 다소의 차이가 있겠으나, 본디 제의와 놀이가 굳이 구분되지 않은 융합적 측면이 강했다.<sup>6)</sup> 고대 제천의식 행사의 원시무요(Ballade Dance)가 그러한 것의 방증이며, 근래까지의 우리 민속에 관혼상제의 의식(Ceremony)의 외형이 그 내적 성격의 현저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공히 공동체적 축제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 또한 그 유흔(遺痕)의 하나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축제는 본래 어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고축’과 ‘제전’을 아우르고 있었다. 따라서 그 안에는 종교성과 예술성이, 그리고 유희성과 일탈성이 혼재되어 있었던 바, 그것은 성격적 기능적으로는 ‘미분(未分)’의 상태라기보다는 오히려 ‘총체적 통합의 상태’에 가까웠다고 보는 것이 현대인이 이해하기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고대인들에게 종교성과 예술성 유희성과 일탈성은 기본적 기능적으로 둘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실 어떤 점에서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그렇게 분화된 시스템으로 이성과 감성을 조절하며 기계적으로 심리와 행동을 결정하는 존재일 수 있는가 의심스럽지 않은 바가 아니며, 오히려 현대인들의 고난과 질곡은 통합해야 할 것을 분화하려 하는 데서 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하는 점이 없지 않다. 이런 면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특히 신생학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현대 공연학(Performance Study)에서도 제의(祭儀)를 응당한 주요 공연행위로 보고 있는 점은 매우 시사적이다.<sup>7)</sup>

---

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제의’와 ‘축제’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축제’는 그 구분 자체가 명확치 않고 양자의 기계적인 ‘접맥’이 난무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축제(祝祭)’의 사전적 의미는 ‘1)축하하여 제사지냄. 2)경축하여 벌이는 큰 잔치나 행사를 이르는 말.’로 정의되어 있다. 전통축제의 경우 1)의 의미에 가깝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축제는 2)의 의미에 더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축제의 목적과 형식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사회에서 한가지의 목적과 형식에 모든 이들이 공감할 수 없다면 이러한 구분은 무의미한 일이다.

6) J. 호이징가, 『호모루덴스』, 김윤수 역, 까치 1981 : 놀이와 축제의 관계

7) Richard Schechner, Performance Studies An introduction, Routledge, 2002, 45~77쪽.

과거의 동제(洞祭)는 철저하게 동민(지역민)들이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는 축제였다고 할 수 있다. 종교성과 예술성과 유희성과 일탈성이 모두 그 안에 있었다. 힘겨운 농업노동과 궁핍한 삶의 여건, 메마르고 거친 일상생활과 출구 없는 관계적 속박 속에서도 이 동제와 같은 행사를 통하여, 예컨대 비탄의 삶을 신의 위로와 경책을 통해 정화하고, 정한의 정서를 전통 예술의 미학을 통해 신명으로 승화하며,<sup>8)</sup> 노고와 속박의 삶을 전통 연회의 놀이와 그 잠정적 일탈을 통해 일시 해소함으로써, 사람들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 안에는 그 민족,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민 특유의 독자적이고 변별적인 제의 내지 축제의 방식이 인간의 문화적 삶의 형적으로 담겨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축제의 문화적 의의이자 변별적 가치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과 해방공간의 혼란, 6·25의 참사, 1·2공화국 정권의 무지와 3공·유신 정권의 민속 탄압 내지는 왜곡적 근대화정책으로, 한국의 축제는 그 원형과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예컨대 조잡하고 조악한 얼치기 ‘가장행렬’과 저급하고 무질서한 ‘난장’으로 대표되는, 천편일률적이고 진부(陳腐) 의연(依然)한 무국적적 행사가 되고 만 것이다.

외국 관광객과 외국 학자들의 심방 여부 그 자체가 축제의 가치를 가름하는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한국의 경우 강릉 단오제를 비롯한 한 두 축제 외에는 철저하게 한국의 축제를 외면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로 치자면 전통 동제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일본의 소위 ‘마쯔리’를 무수히 찾는 현상<sup>9)</sup>과 비교할 때, 그것의 가치 잣대로서의 효용을 마냥 부정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당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그 주된 이유의 하나가 축제의 원형과 순수성의 담지(擔持) 여부가 갖는 변별적 가치의 유무라는 데 이르면 한국의 지역축제 현실에 대한 진

8) 천이두, 『한의 구조 연구』, 문학과지성사, 서울, 1993.

9) 이보형, 「춘향전과 남원춘향제에 대한 토론」, 판소리학회 제52차 학술대회, 전주대, 2006.5.13.

정한 반성과 시급한 대책이 절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한국의 지역축제는 대부분의 그것이 시작된 3공시대의 포메이션과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경우 오히려 그것이 실력자들의 기득권으로 이권화 되면서 더욱 고착되거나 강화된 현상마저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역축제에 대한 지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의견이 수렴된 축제의 새판 짜기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그것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도출된 지역민의 새로운 합의이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이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본고의 성격상 다음 기회로 미루거니와, 여기에서 굳이 그것을 언급하는 것은, 축제의 본래적 성격에 비추어 ‘동동축제’가 가질 수 있는 지역축제 본연에 대한 함목적적 함본질적 가능성은 상기한 한국지역축제의 현주소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크고 올곧은 방향성을 가진 것임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관변이나 기득권자들의 손이 아닌, 지역민들의 여망이 반영된 통로를 통해, 예컨대 비정부기구 민간단체나 연구 및 교육기관을 범용적(汎用的)으로 포괄,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대안과 콘텐츠를 기획하고, 시연 및 지역민의 참여와 반응을 통해 검증하고, 다시 이 ‘여론수렴에서부터 검증까지의 과정’의 반복하면서, 그 모든 과정마다에서 절장보단을 누적해 간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이 ‘동동축제’를 가장 이상적인 이 지역의 축제로 다듬어갈 수 있을 것이다.

관광 상품 만능주의와 그에 영합한 싸구려 문화축제의 범람으로 지역축제의 고유하고 변별적인 순수가치가 망실되고, 지역민의 축제에 대한 건강한 기대와 생태적 여망이 유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축제의 모색은 이제 시급한 목전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본질에 충실한 지역축제가 우리 지역민들에게 소중한하고 아름다운 체험이 되어야함은 물론 이 지역에서 삶을 영위해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하루의 삶을 다시금 생기 있게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하늘과 지역의 땅과 지역의 인간이 행복하게 만나서 아름답게 어우러져 이 지

역의 생명력을 튼튼히 이어내는 일이야말로 지역 축제의 축제 그 자체를 넘어서는 기능이라 할 것이다. ‘동동축제’는 바로 우리에게 그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할 좋은 등가물로서 지역민에게 축제적 시간과 축제적 공간을 향유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할 소명 그 자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3. <동동>의 축제 연출 가능성

<동동>이라는 고려가요는 그 자체 내에 역사와 문학과 음악을 내재하고 있고, 관련된 역사적 사실은 그에 결부한 사회적, 군사적 의의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동동을 주제로 하는

축제를 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미 다채로운 분야에서 충분한 소재와 방법을 잠재적으로 구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동동을 축제로 연출한다면 고민해야 할 주된 화두는 어떤 소재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 것인가 라는 일견 고통스러운 모색의 문제이기보다는, 어떤 소재를 어떤 방법으로 살려낼 것인가 하는 보다 행복한 취택의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가능한 그 취택의 대상들을 먼저 점검해보고, 다음으로 그것이 지역축제의 본질을 가장 잘 표상해낼 수 있도록 유효한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순서가 되겠다.

#### 1) 북축제

먼저, 첫째로 특징적 측면의 부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요즘처럼 각기 지역마다 온갖 ‘축제’가 급조되고 난무하는 혼조상황에서 변별적 특징이야말로 축제의 존립 여부를 좌우하는 가장 기선적(機先的) 명제가 될 것이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에, 동동의 경우, ‘북소리’와 ‘북’을 브랜드화 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동동은 그것이 현재는 문자기록 형태의 시가로 남아 있는 것이지만, 본래 음향과 선율을 가진 노래로서의 음악이었던 바, 이에 더하여 후렴귀의 여음에는 북소리 반주의 모사가 확연한 의성어(擬聲語)로 명백히 노출되어 있다. 게다가 그 북소리 의성은 이 시가의 제목(명칭)이기도하다. 동동축제를 북소리축제 내지는 북축제로 연출하는데 아무런 부자연스러움이 있을 수 없는 직접적 이유가 될 것이다.

북소리는 오랜 옛날부터 심장의 고동소리에 비견했을 만큼, 모든 생명의 리듬이 내는 근원적 음향이자 태초로부터 무한히 이어지는 우주적 공간과 시간 운행의 상징적 음향이며, 지적 존재로서 표현욕구를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는 원초적인 음악 충동의 표상이다. 북소리에는 모든 생명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북소리는 그만큼 인간에게 친근하고 본능적이며 자극적인 음악적 질료이다. 축제의 기제(機制)로서 손색이 없을뿐더러, 여타 다양한 음악매체와의 결합력도 매우 강한 터이므로 연출 여하에 따라서는 가장 매력있는 문화적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북은 가장 오래된 악기이자 가장 간단한 악기 중의 하나이며 오늘날에도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필수적인 악기인 동시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계 각지 그 어디든 인간이 사는 곳이면 어김없이 존재하는 악기이다. 종류도 시대와 지역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가 하면, 그 주법(奏法)도 단순 소박한 것으로부터 상당히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큰 범위의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다. 예컨대 판소리 장단인 소리북의 주법은 우리나라의 국가주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도 한데, ‘소년 명창은 있어도 소년 명고(名鼓)는 없다’는 사계(斯界)의 전언(傳言)이 있을 정도로, 소위 무궁무진을 참칭할 만큼 그 주법이 다양하고 절묘한 바가 있다. 이처럼 가장 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장 어렵기까지 한 악기가 바로 이 북이라 할 것인데, 이는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고차(高次)한 경지에 이르기까지 평생 동안이라도 염권(厭倦) 없이 추구할 수 있는 악기가 북임을 뜻한다. 즉 북은 가장 소박한 악기이면서 동시에 음악으로서의 높은 기교적 완성도와 정신적 심오함까지 겸비하고 있

는 그런 악기인 것이다.

게다가 북은 사회적 성격도 강해서, 고래로부터 공동체의 행동 신호로 또 행사 음악으로 쓰였음은 물론, 또 군대와 전투에서의 진형의 형성과 이동 및 진퇴의 시그널로도 쓰였다. 전 세계에 걸쳐 종족집단의 제의 및 유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악기이자 수단이었으며,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집단과 개인 간 사회적 행동의 약속에 쓰이는 사회생활 방편 중의 하나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 북은 더욱 발달된 형태의 결합으로 풍물 음악을 형성해서, 때로는 농악으로 때로는 군악으로 때로는 무악으로 때로는 주악(奏樂;반주음악)으로 매우 다양한 탄력적 활용으로 민속과 전통음악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북이 역사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집체적 성격과 대중적 성격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북은 대중에 대한 흡인력과 미적 매체로서의 중량감, 그리고 사회적 집체성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만큼, 북을 주제로 동동축제를 연출해 낸다면 바람직한 지역 축제가 도모하는바 문화적 의의 고양(高揚)과 지역민의 참여 및 향수(享受)라는 안팎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2) 시가(詩歌)축제

다음으로 두 번째 시가적 측면의 부각을 들 수 있다. 동동은 주지하다시피 고려시대의 속요이고, 이는 동동이 과거 노래로서 존재했으며, 오늘날 노래의 기록적 형태인 시로서 남아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지금에 우리가 이것을 축제의 형태로 되살린다고 한다면 동동의 노래로서의 정체성을 조명하고 노래축제로서, 가요축제나 시가축제를 포괄하는 형태가 유용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래는 오늘날도 대중성과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장르이고, 국내외 동서고금을 망라한 주요 음악은 모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여기에 면밀하고 경륜 있는 기획력과 연출력이 더해진다면 충분히 상업적으로

도 전망이 있는 축제로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노래는 그 발원이 인류의 언어와 같이 했다고 할 만큼 유구한 역사를 가진 것이고, 갖가지 형태로 언제나 인간생활과 더불어 있었던 것인 데다가,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산업 중의 하나이기까지 하다.

더욱이 노래는 종류도 매우 다양해서 전통음악, 서양고전음악, 대중음악의 각 분야에서 수많은 하위 장르를 가지고 있다. 그 수많은 모든 장르를 모든 대중들이 모두 향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제에 오버크로스(over-close)의 기회와 실험을 노래의 생산과 소비 양면에서 다 시도해보는 것도 뜻있는 일이 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성과도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장르마다 모두 일정한 종사자와 애호가들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인지도가 높은 종목에서는 대중의 참여 유도과 향유 기회를, 인지도가 낮은 종목에서는 그 미적 가치의 고지(告知)와 접촉 및 학습의 기회를 각각 공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 기회에 시가 노래로서 기능할 수 있고 노래가 시로서 더불어 존재할 수 있도록 시와 노래가 행복하게 만나는 그러한 시가축제의 새로운 패턴을 모색하고 창안할 수 있다면 그 의의는 더욱 큰 것이 될 것이다. 다양한 뮤지션들과 시인들이 만나서 다양한 노래를 유통 창출하고, 지역민들이 뮤지션 및 시인들과 또한 지역민 상호간에, 노래 또는 시가를 통해 교류할 수 있다면 이 동동축제는 축제의 본질이 도모하는바 소기의 목적에 부합하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3) 역사축제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역사적 측면의 부각을 간과할 수 없다. 동동은 그 노래의 유래가 고려말 유탕장군이 이 지역 장성지구(장성마을;장성포,장생포) 앞 바다에서 왜구를 격퇴하고 이를 군관민이 함께 자축한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sup>10)</sup>, 이에 상응하는 형태의 축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게도 합당한 것이 될 것이다. 동시에 동동의 유래

가 되는 이 사건의 축제적 부각은 그것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반추에 머무르지 않고 치열한 국제경쟁의 시대를 살아야 하는 오늘날의 한국인들에게 생산적 교훈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이기까지 하다.

유탁장군의 역사적 업적과 캐릭터를 재조명하여 부각시키고, 충무공을 통해서 이미 상당부분 인지도가 높아진 것이지만 수군의 활약과 해전의 중요성을 이에 연계시키며, 군관과 민의 협력과 화합을 자연스럽게 강조하는 것 등은 동동축제가 결여할 수 없는 필수적인 역사 콘텐츠의 기본항이 될 것이다. 유탁장군의 생애와 역사 행적, 특히 그 환로(宦路) 역정 등은 자못 드라마틱한 면이 많은 만큼,<sup>11)</sup>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생애를 재구성하여 다양한 매체로 작품화하고<sup>12)</sup> 그 캐릭터를 살린 여러 이벤트나 브랜드가 가능할 것이며, 수군과 해전을 주제로 한 다양한 놀이와 체험 프로그램이 또한 가능할 것이다. 특히 이 체험 프로그램 분야는 보는 축제에서 참여하는 축제로의 '축제의 본질 회복'을 위한 핵심적 분야이므로, 꼭 장성마을 또는 여수지역의 전래놀이 여부를 떠나서 '고싸움놀이'나 '차전놀이' '용줄다리기' '노젓기' 등을 차용해서 시도하는 것도 고려

10) 김준욱, 전계 논문.

11) 유탁(柳灌/1311~1371) 고려 말기의 대신. 본관 고흥(高興). 자 춘경(春卿). 시호 충정(忠靖). 일찍이 음보로 조정에 나가, 원나라에 가서 숙위(宿衛)하고 돌아왔다. 감문위대호군(監門衛大護軍)이 된 뒤, 여러 관직을 거쳐 고흥군(高興君)에 봉해졌다. 원나라로부터 합포만호(合浦萬戶)로 임명되었고, 충정왕 때 찬성사를 지냈다. 공민왕 초에는 전라도만호가 되었으며, 《장생포곡(長生浦曲)》을 지어 악부(樂府)에 올리기도 하였다. 이어서 찬성사를 거쳐 좌승상이 되고 1354년 고흥부원군에 봉해졌다. 원나라가 홍건적(紅巾賊)을 정벌할 때 공을 세우고 돌아와 문하시랑동중서문하평장사(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를 거쳐 경상도도순문사 겸 병마사, 좌정승이 되었다. 69년 노국공주(魯國公主)의 영전(影殿) 신축을 반대하다가 투옥되어, 이색(李穡)의 도움으로 석방되었으나, 71년 신돈(辛旽)이 주살되자 그와 관련되었다는 무고를 받아 교수형을 당하였다. 조선 태조 때 고흥백(高興伯)에 추증되었다. 『두산세계대백과』

12) 예컨대, 유탁장군의 생애를 이왕의 지명도 높은 역사인물인 공민왕 및 신돈 등의 행보와 관련하여 삼각 조명으로 양각시켜내면서, 이를 통해 유탁장군의 존재를 고려 말의 격동기에 고난의 행보를 이어가다 마침내는 좌절되고 마는 민중의 여망으로 그려낸다는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세 유형 외에도 이 동동축제를 연출해 내는 주제와 방법은 다수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다른 주제와 방법을 통하든 또는 이 세 유형중의 하나나 둘 내지는 다를 통하든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 바, 그것은 전술했던 지역축제로서의 본모습 제자리 찾기 이다. 이것이 회복될 때만이 지역축제는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한 것’으로부터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정체성이 확실하고 주제가 분명한 축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 축제에 반드시 변별적 특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구태여 특정지역까지 특정축제를 보러 갈 때는 그 특정축제가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변별적이 특징이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일부러 그 특정지역까지 갈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소수의 특정 기득권자나 유력자가 아니라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는 축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단계에서부터 진행단계 결산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 스스로가 다양한 민주적 채널을 통해 활발히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축제 집행 조직은 개방적 시스템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 전체에게 공동체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확인하게 하며 그 인드라망(Indra網)과 같은 유기적 관계의 연대감이 주는 감격 속에 다시금 삶의 힘을 얻게 해야 할 지역축제가 결코 몇몇 인사들의 독점적 배타적 ‘대목 맞이’ 행사일 수는 없는 것이며 구태의연한 난장 상흔의 범람 지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보는 축제가 아니라 참여하는 축제,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축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체험하는 축제, 정해진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추종적 축제가 아니라 아이디어와 창발성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선도적 축제, 질서정연한 안정적 축제이기보다는 에너지틱(energetic)한 역동적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축제를 주관하는 기구와 조직이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충분히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수용적이라면, 거기에 주체적 관

단과 선택의 권한을 충분히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축제의 패러다임을 본래적 면목으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지역축제의 제자리 찾기를 가능하게 할 ‘전환적 프로그램’의 모색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는 문화적 중량감이 있는 축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에의 연고와 그로 인한 역사적 의의, 문학적 또는 예술적 유산으로서의 문학사·예술사적 가치와 미학적 효용, 이와 같은 것들이 빚어내는 문화적 중량감이야말로 축제의 당위성과 가치를 공고하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문학·예술 등의 각 분야 공히, 예컨대 학술대회 및 논문공모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심도 있는 학문적 연구와 그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시간의 경과와 함께, 그 성과들의 간단없는 누적이 그 부피와 중량을 더해가서 축제의 깊이와 무게를 더해 가는 데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요컨대 축제는 본질적으로 문화행위라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4. 개발 방안-개발 모형 예시

동동축제 연출 가능성에 대한 모색과 취택의 문제 검토 과정을 통하여, 이 축제가 특화된 문화예술축제 역사축제 대중축제 체험축제로서의 여러 측면들을 지역축제의 본질 회복과 담지(擔持)라는 전제 위에 세워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면, 차제에 그러한 축제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개발 방안으로서의 다양한 축제 모형 예시와 가능한 이벤트 및 그 디테일의 탐색과 제시는 보다 실용적이고 가시적인 목전의 과제가 될 것이다.

기실, 이러한 과제는 이 분야의 관계 전문 업체나 기관의 전문가들이 훨씬 실효적이며 가용성이 높은 현실적 모형들을 안출하여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 현장의 시각과 목소리나 국외자의 객관적 착상 피력을 통하여 소재의 영역을 넓게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탐색하고 제시하는 개발 방안들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축제를 바라보는 문화일반 대중의 여망을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한 단편적 견해와 아이디어의 제시라는 형태로 드러낸 것이라고 이해하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엄격한 전제나 실무적 조건 없이 엮어낸 착상들은 대체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구현이 불가능하다든지 또는 지나치게 진부하거나 피상적인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 또한 긍정적으로 고찰해볼 수 있다면, 즉 축제 생산자에서 축제 소비자로서의 역지사지와 타산지석의 미덕 발휘가 가능하다면, 이 역시 활용의 묘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유용한 취재로 이어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축제 모형을 향한 신선한 발상 전환의 단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감히 가져본다.

동동축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존 축제 관념이 가지는 규범적 사항이나 관행 또는 현실성문제를 잠정적으로 미루어 두고 그 개최 형태를 상정해본다면, 예컨대 그 개최 시기나 패턴 등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도 일견 흥미로운 일일 수 있을 것이다. 즉 동동은 그 시가의 형태가 월령(月令; 달거리)체이므로 그 특징을 살려 축제의 개최 시기를 년 중 1회에서 월 중 1회로 월례화 하는 것도 선도적으로 시험해 볼만한 아이템(item)이라고 생각된다.

동동의 월령에 맞추어 정월부터 선달까지 하위 주제를 각기 다르게 세분해서<sup>13)</sup> 시리즈 축제로 정례화하면, 레저와 관광이 중시되고 문화 향수

---

13) 동동 시가에 있어 그 월령의 바탕이 음력이므로, 우선 음력 달로 짝지을 때, 정월에는 서사의 '덕과 복'을 신는 선박축제와 정월사의 시냇물 하천축제, 이월에는 이월사의 등불 축제, 삼월에는 삼월사의 오얏꽃축제, 사월에는 사월사의 피꼬리축제, 오월에는 오월사의 단오약초축제, 유월에는 유월사의 물가축제, 또는 빗축제, 칠월은 칠월사의 백중축제, 팔월은 팔월사의 가배(한가위)축제, 구월은 구월사의 황화(국화)축제, 시월은 시월사의 열매(과일)축제, 동짓달은 십일월사의 한삼(내의)축제, 선달은 십이월사의 반상(飯床)축제 및 그와 결합된 관련 축제(예컨대 북축제 또는 시가축제, 역사축제와의 결합 등)를 생각해볼 수 있는 바, 월별로 1월은 학술제, 2월은 북축제, 3월은 (시가)문학제, 4월은 국악

가 일상화되는 현시대에 보다 인상적이고 실효적인 이미지로 관광객과 지역민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매월 어느 날 어디에 가면 어김 없이 무엇이 있다’라는 안정적이고 확고한 이미지는 그들 기억의 바탕화면에 하나의 아이콘(icon)으로 기능할 수 있다. 더구나 과거 어느 때보다 기억과 재생 및 그 실행의 주기가 짧고 스피디해진 오늘날 이것은 그 축제의 콘텐츠만 충실하다면 관광객 및 지역민의 여가 프로그램 속에 준비된 ‘바로가기 클릭’으로 자리 잡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대부분의 축제가 연간 1회로 (그것도 상당수가 5월 5일 전후로 집중되어있다) 고착된 상태에서 상호 연계 없이 산만하고 잡다한 행사를 며칠간에 집중해서 백화점식 내지 잡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것은 지역민에게는 행사의 선별과 향유에 대한 ‘충분한 기회’의 박탈이 될 수 있고, 예산 및 소재 면에서는 ‘주최 역량’의 낭비가 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축제의 ‘뭉’을 조성한다든지 전체적 ‘볼륨’을 부풀리고자한다든지 하는 의도, 소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역량으로 최대의 모양새를 갖추고자하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공포탄 효과’라도 도모해야하는 집행 주체의 고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방식은 도리어 축제 주체나 객체 양자에게 모두 그 ‘선택과 집중’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여하튼 이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착상 가능한 그 개발 모형들을 제시한다고 할 때, 그 외적 유형과 내적 성격에 따라 이것들을 몇 가지로 가름하여 예시하자면 대략 다음과 같이 묶어 볼 수 있을 것이다.

### 1) 북축제 관련

북축제와 관련해서는 첫째 체험 프로그램으로 가중 북치기 및 배우기를 생각해볼 수 있겠는데, ‘물박치기, 소고치기’ 등에서 부터 ‘풍물북, 소리북

---

제, 5월은 음악제, 6월은 장승(미술)제, 7월은 연극(영화)제, 8월은 가요제, 9월은 (곰배림배)선박제, 10월은 유탁장군(역사)축제, 11월은 동동(장생포)수군축제, 12월은 동동대동놀이축제 등의 형식 등도 상정(想定)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배우기'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둘째는 전시 및 공연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 및 세계의 각종 북전시회<sup>14)</sup>와 각종 북공연 및 북춤 장고춤 등의 북 관련 공연을, 그리고 셋째는 참여 및 경연 프로그램으로 소리북(고수)경연 대회를 비롯한 각종 북 경연대회를 들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율레축제가 된다면 체험과 공연 및 경연 프로그램을 매월 단위로 상설화할 수 있을 것이다.

## 2) 시가(詩歌)축제 관련

시가축제와 관련해서는 첫째 이론적 기반을 위한 학문적 성과의 누적과 검토를 가능하게 하고 축제 자체의 당위와 품격을 확보해줄 수 있도록 학술대회가 정착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학술대회는 기본적으로 대학이나 연구소에 '동동학회' 같은 것이 있어 주관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매회 관련 학계의 학자들을 초청하여 개최하거나 '시가문학회'나 '구비문학회' 등의 관련 학회를 활용하는 것도 현단계에서는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동동은 국문학, 국사학, 국악학 분야를 비롯해서 한국무용 분야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 두루 관련된 시가인 만큼 그를 포괄한 학술대회가 학제적 성과를 낸다면 자못 그 의의는 광범위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시가비(문학비) 건립도 자체적 의의는 물론 부대적인 파급효과가 큰 만큼 우선적으로 추진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된다. 비의 전후면에 각기 동동의 노랫말과 유래를 새긴다면, 이는 문학사적 비중을 지닌 시가 작품의 기념물로서, 그리고 곡진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물로서 그 가치가 유형화되는 첫 번째 가시적 성과가 될 것이다. 역사 여행 및 관광 소개서나 기행문 도록 등에 사진과 글 등으로 소개되고 그렇게 해서 널리

---

14) 우리 전통 북만 해도 '소리북, 풍물북, 소고'를 비롯해서 '뽕고, 장고, 영고, 뇌고, 삭고, 응고, 건고, 교방고, 중고, 좌고, 용고, 절고, 진고, 갈고, 노고, 노도, 도, 영도, 뇌도' 등이 있다.

알려진다면, 관련 답사 및 투어 코스에 포함되고 사진촬영 및 시가 감상 또는 역사 반추의 명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부차적으로 한 가지 더 첨가한다면 장기적으로 문학관 건립을 추진해보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동동을 비롯해 고려가요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며, 동동의 유래와 관련 역사적 사실 등을 재구성해서 전시하고, 소강당 등에서는 학술대회나 소규모 북 관련 공연 등을 열 수 있게하되, 유탁 장군의 사우(祠宇)로도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 가령 축제 시 제의적 세레모니의 일환으로 유탁 장군 및 군사와 당시의 장생포 주민들에 대한 제향 같은 행사를 하는 해당 공간으로 사용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셋째로 동동문학상 제도를 만들어 신작 시가를 공모하거나 또는 당해연도에 발표된 시가 작품 중에서 그 취지에 맞는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수상작품집 같은 것을 엮어내는 것도 안으로 동동축제의 토양을 기름지게 하고 밖으로 이 축제를 널리 알려 확산시키는데 다소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이와 마찬가지로 국악상 제정이나 국악 경연대회 및 창작국악곡 공모, 창작관소리와 창작 창극 공모 및 경연, 연극 대본이나 영화시나리오 공모, 뮤지컬 및 영화 제작 모색, 창작 성악곡 및 관현악곡 공모 등도 관련 낙수(落穗)로 생각이 미쳐 볼 수는 있겠다.

넷째로 노래자랑 및 신곡 경연 같은 것도 대중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부대 행사로 고려해 볼 수 있을 터이며, 동동 노랫말의 주제가 사랑인고로 미혼 남녀 대상 동동 짝 맺어주기, 커플 단위 참여 행사 및 미스 동동 또는 미스터 동동 선발대회, 사진촬영대회, 백일장 및 사생대회 등도 연출 여하에 따라서는 흥미로운 행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동동회호대회는 동동의 노랫말을 여러 다양한 서체로 각기 잘 쓴 작품을 공모도 하고 지역민이나 관광객들이 직접 써보는 체험도 하게함으로써, 동동 노랫말의 내용도 알고 그 노랫말에 실린 옛 정서와 표현의 아름다움도 알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로 시립국악단, 시립합창단 등 시립단체들을 활용한 행사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해당단체 및 시 당국과의 별도 협의와 조정이 필요할 것이므로 상세한 사항은 후일을 기약하기로 한다.

### 3) 역사축제 관련

역사축제와 관련해서는 첫째로 동동이 유탁장군의 왜구 격퇴라는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있으므로 유탁장군축제 내지는 왜구격퇴축제, 수군전승축제, 장생포주민축제의 성격을 살리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역사관련 축제의 포맷을 빌리자면, 가장행렬이라든지 불꽃놀이, 기념대중공연 등이 있겠으나, 그대로 차용한다면 구태의연하지 않은 축제가 될 수 있을 지 다소 의문스럽다. 따라서 가장행렬은 고려해보되, 동동 및 장생포와 유탁 장군 관련 역사 사실에 대한 ‘이야기 그림 전시회’나 ‘고싸움놀이, 차전놀이, 용줄다리기’ 등의 차용, 도보와 선박을 이용한 ‘전적지 순례’ 등을 모색해보도록 한다. 불꽃놀이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장성지구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산봉우리들, 예컨대 안심산, 무선산, 망마산, 고락산, 전봉산 등 주위 산봉우리에 봉화를 올리는 것도 역사 축제의 분위기를 돋구는 데에 다소 그럴 듯 해보이는 면이 있을 것 같다.

둘째로 동동은 장생포의 장승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동동장승각기’ 이벤트 및 체험 프로그램도 ‘의의와 재미’, 그리고 ‘참관과 참여’ 양면을 다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국의 장승제작자나 연구자, 민속학자, 관련 미술인들과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이 함께 어울리는 흥미로운 행사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장승과 관련해서 특히 동동의 구지(舊址)인 장성지구 해변 주위에 ‘동동장승(벽수)공원’ 및 ‘동동장승거리’를 조성하고 매회 제작된 장승들을 전시한 뒤 공원 내 또는 가로변에 기념물로 설치하는 것도 문학적 역사적 정취가 살아 숨 쉬는 동동의 고장으로서 캐릭터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로 동동은 노랫말 서사(序詞)에 선박(곰배, 립배)<sup>15)</sup>과 관련된 구절이 나오는 데다 유탁장군이 왜구를 물리친 사실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장성지구 앞 만(灣)을 ‘동동바다공원’으로 지정하고 ‘동동선(곰배, 립배)’을 조성하여 ‘동동 노 짓기 대회, 동동 항해 체험, 동동 뱃놀이’ 등을 운영하면서 해양레저 관광의 가능성도 시험해보는 동시에 동동해양축제로서의 가능성도 가늠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가능하다면 전통문루식의 기념 조형물로서의 ‘여수의 문(門)’<sup>16)</sup> 축소판 시제품을 ‘동동문’ 등으로 명명하여 여기 세워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의가 있을 것 같다.

넷째로 동동테마투어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우선은 문학비라도 세워진다면 먼저 시에서 운영하는 시티투어 프로그램에 이 동동 옛터의 문학비 소재지를 필수 방문지로 편입하여 가동해볼 수 있겠다. 만약 상기한 문학관, 사우, 장승공원 및 장승거리, 동동바다공원 및 동동선, 동동문 등이 하나라도 실현된다면 그것을 바로 이 투어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먼저 동동관련 장편소설을 공모한 다음 좋은 작품이 나오면 시나리오나 텔레비전극본으로 각색해서 영화 또는 텔레비전드라마로 만들고 그 세트를 활용한 테마공원을 조성, 테마마켓 등을 운영하면서 여행사나 답사단체들을 통한 동동테마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면 이상적일 것이다. 너무 이상적인 만큼 황당무계해 보이지만 시에서 확고한 비전과 정책적 의지를 갖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간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만도 아닐 터이다.

이상으로 시간에 쫓기면서 줄속으로 글을 마무리하게 되어 문득 다시 되돌아보니, 주도면밀하거나 체계적인 개발 방안 제시라기보다는, 그저 생각이 미치는 것들을 걸러내는 과정 없이 매우 거칠고 조악한 채로 나열한

15) 김준욱, ‘동동은 여수의 노래’, 여수문화 제14집, 여수문화원, 2000, 86쪽.

16) 김준욱, ‘여수의 문 건립을 제안하며’, 여수아오동동다리, 민속원, 2004, 202~203쪽.

채 손을 터는 것이 되고 말았다. 좋은 아이디어와 실용적 방안을 기다리는 각계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송구한 마음 가눌 길이 없다. 다만 관련 주제에 대한 좋은 착상으로 가는 반면교사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 방안들이 무실(無實) 무용(無用)의 폐기지물이 되든, 또는 반면교사의 타산지석이 되든, 혹시 좋은 축제의 디테일을 위한 아이디어의 풀(pool)에 다소의 도움이 되든 간에, 그것이 보다 다각적인 각도에서 보다 다양한 관점들이 다채롭게 반영된 결과였다면 축제기획의 첫 단계로서 소재의 민주적 수렴이라는 더욱 의미 있는 절차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시간적 제약 때문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 취합으로 결과 되지 못하고 개인적 단견의 노출에 그치고 말게 된 것은 이런 점에서 아쉬움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반드시 이런 절차와 과정이 선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김기형, 「춘향제의 축제적 성격과 변모과정」, 『춘향과 21세기 한국문화』(춘향제 70주년 기념 학술발표회), 판소리학회·춘향제전위원회, 2005.
- 김성중, 「한국축제의 개념과 범위」, 『소규모 저예산 동별 지역축제론 시론』, 향토 축제문화연구소. 전고필, 「지역축제의 속내와 무심한 관객」, 광주 문화의 집 블로그, 2006.
- 김준옥, 「장생포의 창작배경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연구』 제44호, 한국언어학회, 2000.
- 김준옥, 「동동은 여수의 노래」, 국어국문학회 제42회 전국학술대회, 연세대학교, 1999.
- 김준옥, 「장생포와 동동」, 『한국언어문학』 제35집, 한국언어학회, 1995.
- 김준옥, 「여수의 문 건립을 제안하며」, 여수아오동동다리, 민속원, 2004.
- 이보형, 「춘향전과 남원춘향제」에 대한 토론」, 판소리학회 제52차 학술대회, 전주대, 2006.5.13.
- 전고필, 「지역축제의 속내와 무심한 관객」, 광주 문화의집 블로그, 2006.

천이두, 『한의 구조 연구』, 문학과지성사, 서울, 1993.

J. 호이징가, 『호모루덴스』, 김윤수 역, 까치 1981 : 놀이와 축제의 관계

Richard Schechner, Performance Studies An introduction, Routledge, 2002,  
45~77쪽.

<투고일 : 2006. 6. 15. 심사일 : 2006. 7. 15. 심사완료일 : 2006. 7. 31.>

K C I

<Abstract>

## The Development Device And The Production Possibility Of 'Dong-Dong' To The Successful Local Festival

Choi, Jeong-sam

In now a days, The festival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thing in human life. Because the festival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exit from hard labour and dried everyday life. But the present state of local festival in our country is not efficient in that function. So, in this time, the necessity of development of new local festival is becoming urgent task in our soci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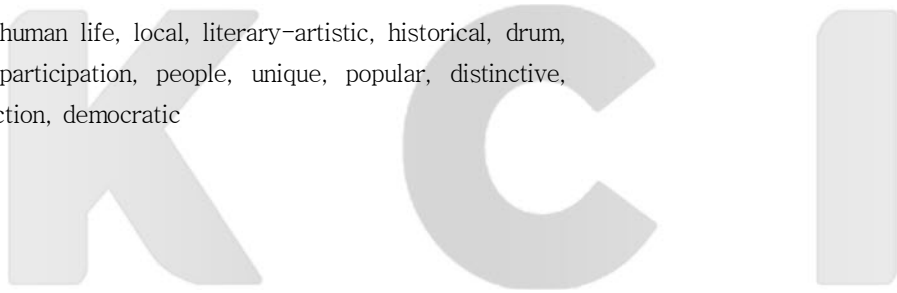
By the time, the discovery of 'Dong-Dong(Jang-Saeng-Po Gok)' as the song of 'Yeo-Soo' open the door of new territory that we can produce new local festival from the combination with the literary-artistic character and historical character and local character that is immanent in 'Dong-Dong' itself. Futhermore, the theme of the 'drum sound' as onomatopoeia(imitating sounds) in 'Dong-Dong' have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to worldwide festival in that case of we may rise up the musical and experiencial and mass and primitive character in added to its character of poems and songs. In principle, the ideal local festival must have the elements of local connection and historical reality and cultural worth and artistic sensibility, in fact 'Dong-Dong' have all these elements in sufficient. So, if we can development 'Dong-Dong' festival, it could be the 'traditional culture festival' and 'local society festival' and 'literary artistic festival'. Moreover, if we add the participation of local people, 'Dong-Dong' drum festival could be the most valuable local festival. Actually,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in festival is most important thing

for all ages and in all places.

'Dong-Dong' have literature and music and history in itself and historical fact of that is immanent in military significance, so the task of 'Dong-Dong' festival in front of us will be the task of selection among the various pattern of festival. For example, we can choose the 'drum festival' and 'poem & song festival' and 'historical commemoration festival' and so on. In those example, especially 'drum festival' is very unique and popular and distinctive and flexible and various and primitive. In addition to that, the playing the drum (especially 'Pansori-drum') in Korea (an accompaniment with drum in Korean traditional vocal music 'Pansori') have fertile artistic depth and various colorful method in its accompaniment. And drum is easy object to approach in all the people. After all, it has all aspect from popularity to artistic dept. Therefore 'Dong-Dong' drum festival is most suitable to ideal festival of local society.

In this stage, if we can forecast the possibility of reflection of all over the people of this local society with democratic method, it could be most valuable and successful local festival.

**Keywords** : festival, human life, local, literary-artistic, historical, drum, sensibility, traditional, participation, people, unique, popular, distinctive, flexible, primitive, reflection, democratic



к с і